

# 2006년도 9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 언어 영역 •

###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 해설

<1번> 이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 강좌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차세대 한류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비보이(B-boy)'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비보이는 힙합댄스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기술을 요하는 '브레이크댄스'를 추는 사람'을 뜻합니다. 강렬한 비트와 신나는 음악에 맞춰 꺾고, 틀고, 돌리는 다양한 기술을 보면서 사람들은 저게 인간의 몸이냐고 찬탄해 마지않습니다.

그럼 비보이의 몸놀림 중에서 대표적인 동작을 몇 가지 소개해 볼까요? 먼저 체어(chair)라는 동작이 있는데, 한쪽 팔을 완전한 기억자로 꺾어 짚으면서 몸을 공중에 띄운 채 순간적으로 멈추는 동작이지요. 이때 나머지 한쪽 손으로는 발끝을 붙잡아 올립니다. 그리고 토마스(thomas)라는 동작은 두 손을 등 뒤로 하여 바닥에 짚고 몸을 공중에 띄워 다리를 엇갈려 돌리는 방법으로, 상당한 수준의 연습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다음으로 윈드밀(windmill)이라는 동작은 어깨를 바닥에 댄 채 그 탄력을 이용해서 다리를 풍차처럼 돌리는 기술입니다. 이런 고난도 기술이 바닥을 훑고 구르고 휘젓는 연속 동작으로 유연하게 표현될 때 보는 사람들이 탄성을 지르지 않을 수 없지요. 한편 나인틴(nineteen)이라는 기술은 한쪽 팔로 물구나무를 선 상태에서 원심력을 이용해 빠르게 몸을 회전하는 매우 역동적인 동작입니다.

이런 다양한 동작들을 세계 최고의 기술로 구사하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전 세계 비보이 대회를 석권하면서, 세계 45억의 인구가 지켜 볼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전야제에 초대받기도 했습니다. 비보이는 이제 가장 경쟁력 있는 문화상품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1. [출제의도] 제시된 정보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선지에 그럼으로 제시한 동작 중, ①은 두 손을 등 뒤로 하여 바닥에 짚고 몸을 띄워 다리를 엇갈려 돌리는 토마스(thomas)이다. ③은 맨 처음에 제시한 체어(chair)라는 동작으로 한쪽 팔을 기억자로 꺾어 짚은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④는 어깨를 바닥에 대고 다리를 돌린다는 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윈드밀(windmill)이라는 동작이다. ⑤는 한쪽 팔로 물구나무를 서고 있는 나인틴(nineteen)이라는 동작이다. ②의 동작은 강좌에서 소개하고 있지 않다.

<2번> 이번에는 인터뷰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기 자(남) :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고등학교 학교 신문반 취재 기자입니다. 저희 신문에 '이색 직업 탐방'란이 있는데, 여기에 선생님께서 종사하고 계신 '웨딩플래너'라는 직업을 소개하기 위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웨딩플래너(여) : 아, 반갑습니다. 사실 웨딩플래너라는 직업은 학생들에게는 아직 생소하게 들릴 거예요.

기 자 : 예, 그래서 친구들에게 자세하게 소개할까 하구요. 그럼 웨딩플래너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직업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웨딩플래너 : 예, 한마디로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을 돕는 일을 하지요. 인륜지대사라고 하는 결혼 준비 과정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예식장 선정과 예약에서부터 예물·예단 등의 혼수용품과 살림집 장만, 신혼여행에 이르기까지 준비할 일이 여간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비 부부들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시행착오를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신혼 여행지를 선정해 주고 숙소 예약을 대행하는 등 결혼에 관한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 자 : 네, 바쁜 현대인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계시네요.

웨딩플래너 : 네, 그게 보람이지요.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도와준다는 의미도 있고요, 무엇보다 해야 할지 몰라 갈피를 못 잡는 사람들에게 마치 영긴 실타래를 풀어주듯 차근차근 절차를 챙겨 주는 보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고의 행복감에 젖어 있는 예비 부부들에게서 저 자신이 행복을 수월 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 좋습니다.

2.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인터뷰에서 웨딩플래너는 ① 예식장 선정과 예약에서부터 ② 예물·예단 등의 혼수용품과 살림집 장만, ③ 신혼여행에 이르기까지 결혼에 관한 각종 절차를 대행하고 물품을 알선한다고 말하고 있다. 마지막 말에서 웨딩플래너는 예비 부부들의 새로운 인생 출발에 도움을 주는 것을 직업의 보람이라고 말한다. ④는 웨딩플래너가 직접 밝힌 내용이 아니다.

<3번> 이번에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도시 변두리에서 조그만 동네 목욕탕을 운영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욕탕은 수십 년 간이나 동네 사람들의 작은 쉼터 같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만, 열풍처럼 번지는 찜질방의 인기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단돈 일, 이 천 원만 더 내면 이용할 수 있는 크고 편리한 새 찜질방을 놔두고 변두리의 낡은 목욕탕을 찾을 리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네 목욕탕의 시련은 잠깐이었습니다. 이 목욕탕은 날이 갈수록 다시 사람들로 붐비게 되었습니다. '주인 아저씨'라는 말이 더 어울릴 만큼 소탈한 목욕탕 사장님이 목욕비를 이천 원으로 낮춘 겁니다. 사실 이천 원이면 반값이지요. 처음엔 사람들의 눈길을 끌 연말 할인 이벤트 정도로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적극 호응하자 아저씨는 이웃들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계속 가자, 하고 목욕비를 아예 이천 원으로 고정시켰습니다.

텅 비었던 목욕탕이 예전처럼 활기로 가득 찼고, 이웃사촌인 손님들끼리 자연스레 등도 밀어주며 함께 목욕을 즐겼답니다. 그런

데 주목할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손님들이 알아서 시설물을 아껴 쓰기 시작한 거지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샤워는 짧게, 비누와 치약은 조금씩,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주인이 목욕비를 반값으로 낮춰 줬는데 우리도 뭔가 해야지.” 목욕탕을 찾는 손님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손님만 얻은 게 아니라 이웃의 마음까지 얻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저는 새삼 삶의 진리 하나를 배웠습니다.

**3. [출제의도] 앞의 이야기에 비추어 이어질 내용을 추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목욕탕 아저씨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의 핵심은 아저씨가 목욕비를 이전 원으로 내려서 고정시켰다는 것과 목욕탕 이용객들이 자발적으로 시설물을 아껴 썼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아저씨는 욕심을 버리고 이익을 따지지 않았으며, 손님들은 목욕탕 시설물을 아낌으로써 이에 대해 화답했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발표자는 아저씨 이야기에서 자신의 욕심을 비움으로써 동네 사람들의 진정한 마음을 얻었다는 것을 교훈으로 배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4번> 이번에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학 생(여) :** 동장님, 그 동안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 장(남) :** 아, 오늘이 봉사활동 끝나는 날이지? 그동안 참 고생 많았어요.  
**학 생 :** 필요. 동장님 덕분에 많은 보람을 느꼈어요. 그런데 참, 궁금한 게 있는데요...  
**동 장 :** 뭔데? 말해 봐요.  
**학 생 :** 주민등록번호 말인데요, 앞에 있는 숫자가 생년월일로 정해지는 건 알겠는데, 뒤의 숫자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해요.  
**동 장 :** 음, 모두 열세 자리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 중, 뒤의 일곱 자리는 말이야, 성별이나 지역 코드, 출생신고 순서 등에 따라 정해지는 거지. 그 일곱 자리 중에서 맨 앞자리는 성별을 나타내는데, 남자는 1, 여자는 2로 표시되지. 2000년 이후 출생한 사람들은 남자는 3, 여자는 4로 표시돼. 또 성별 코드 다음에 나오는 네 개의 숫자는 지역 코드인데, 출생신고를 한 지역의 읍·면·동 고유번호에 해당하는 거야. 그 다음 지역 코드 뒤에 오는 한 자리 숫자는 출생신고 당일 그 출생신고서가 해당 읍·면·동에 접수된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맨 끝 자리는 주민등록번호가 진짜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번호라고 할 수 있지. 이 숫자는 생년월일을 포함한 앞의 열두 개 숫자를 모두 특정한 공식에 대입해서 산출해 낸 거야.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 여기 있는 두 사람의 번호를 비교해 봐. 뒤 번호 일곱 자리 중, 다섯 자리가 이렇게 똑같지? 이런 경우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겠어?

**4.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두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중, 숫자가 일치하는 부분에서 각각의 자리 번호가 어떤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알고 각 자리의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번호가 일치되는 부분은 뒤의 번호 일곱 자리 중 앞의 다섯 자리이다. 그 중 맨 앞자리는 성별을 나타내고, 그 다음 네 자리는 출생신고 지역을 나타낸다. 따라서 두 사람은 성별과 출생신고지역이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다.

<5-6번> 이번에는 대담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5번과 6번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행자(여) :** 오늘은 사회학자이신 김 박사님을 모시고 ‘복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박사님, 안녕하세요?  
**김 박사(남) :**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 복권의 탄생에 대해서는 “희망과 자본주의가 만나서 복권이 생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복권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말, 아닐까요?  
**김 박사 :** 복권이 희망을 준다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희망이 무모한 것은 아닌지 한번쯤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행자 :** 복권을 구입하는 것이 무모한 일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군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 박사 :** 그러죠. 2,000원짜리 복권을 한 장 사 보면, 복권 뒷면에 1등은 얼마, 2등은 얼마 하면서 당첨금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이 당첨금의 합계는 복권 판매금의 절반 정도가 됩니다. 즉 복권값 2,000원 중에서 1,000원만 구입자들에게 돌아오는 셈이지요. 하지만 이 상황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희망의 값을 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진행자 :** 복권값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물론 누가 당첨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희망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이 그렇게 무모한 일일까요?

**김 박사 :** 꿈도 희망도 근거가 있어야 아름답습니다. 복권에 담긴 희망의 가능성을 수학적으로 풀어보면, 15만 3,680년 동안 매주 복권을 한 장씩 샀을 때 한 번 1등에 당첨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진행자 :** 예에? 15만... 3,000년이나요? 가능성이 겨우 그 정도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무모한 희망이라고 하신 것이군요.

**김 박사 :** 맞습니다. 재미나 자선의 의미에서 복권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복권으로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이라면 복권은 복으로서의 의미가 없지요. 확률을 한번쯤 생각해본다면 복권을 무조건 희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진행자 :** 당첨 확률이 매우 낮은 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당첨될 수도 있다는 괜한 기대심리 때문에 계속해서 복권을 구매한다는 의미로군요. 그럼 앞으로 복권은 구입하지 말아야 하는 건가요?

**김 박사 :** 그것은 아닙니다. 복권을 사는 일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른 모든 일들도, 적절한 근거에 의해 실행할 때 의미가 있다는 말이지요. 언제나 선택은 여러분 자신이 하는 것이지만, 그 선택은 좀더 현명해야 하지 않을까요?

**5.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로, 대상에 대한 발화자의 견해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김 박사는 당첨 확률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을 들어 복권에 대해 무모한 희망을 갖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복권이 희망을 주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복권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 확률보다 훨씬 높은 기대 심리를 품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6. [출제의도] 방송 대담에서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이 대담에서 진행자는 김 박사가 말하는 내용을 들은 후, ‘~무모한 일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군요’라든가, ‘복권 값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또 ‘~복권을 구매한다는 의미로군요’ 등의 말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7. [출제의도] 시각 자료를 통해 연상하는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여자가 남자에게 ‘내가 예쁘지 않아요?’ 하면서 묻는다. 남자는 예쁜 것은 아니라고 대답한다. 이에 대해 여자는 자기를 못생겼다고 한다고 화를 내고 있다. 여자는 예쁜 것이 아니면 못생겼다는 판단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과 같이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라는 흑백논리를 생각하며 그것을 경계하는 글을 구상할 수 있겠다.

**[오답풀이]** ① 두 사람의 대화가 이익을 추구하는 내용은 아니다. ③ 여자가 자기를 예쁘게 생겼다고 판단해 달라고 남자에게 강요하는 상황은 아니다. ④ 여자의 판단이 과정을 무시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⑤ 두 사람의 대화 상황에서 여자가 화를 내는 것은 성급한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8. [출제의도]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 글쓰기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두 번째 항목이 ‘구체적 상황에 적합한 속담 찾기’이므로 ‘ㄷ’의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속담을 넣어야 한다. 그러나 ㉠의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은 ‘아무도 안 듣는

데서라도 말조심해야 한다.’는 의미로 ‘실천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큰소리친다.’는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다.

9. [출제의도] 조건에 맞는 글쓰기를 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내가 어머니에게 동생의 잘못을 말하는 것은 동생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의도와 동생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고조되어서 그러한 것이므로 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반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은 나와 동생과의 관계와 가정 상황을 제시하여 인물·상황을 소개하고 있고, ②는 동생이 추레한 모습으로 늦게 귀가하는 것이 발단과 갈등 형성에 해당한다. ③은 동생이 가게 주인에게 혼나는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④는 그러한 것을 보고도 화가 난 내가 동생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은 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0.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에서 ‘자료 해석, 의미 추출, 주제 적용의 단계’에 따라 적절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글쓰기 단계의 계획은 자료를 해석하고 이에 대한 의미 구조를 추출하여 실제 적용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일이다. <보기>는 한 청년이 지혜로운 왕을 찾아가 인생의 지혜를 배우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이를 학습에 임하는 자세와 관련한다면, 일단 청년이 왕에게 조언을 구하려 갔다는 점과 집중력 있는 태도의 중요성을 들 수 있다. 왕의 조언은 학습에 임하면서 어려울 때는 다른 사람의 지혜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학습 태도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문제와 ④의 사교육에 의지하는 학생에게 창의성을 강조한다는 계획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오답풀이] ⑤ 포도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성을 들 수 있었던 것은 청년이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 집중한 것이므로 산만한 학습 태도를 가진 학생에게 집중력 있는 태도를 강조할 수 있다.

11. [출제의도]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조건에 맞는 글쓰기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입시(또는 성적)의 경쟁 구조에서 심리적인 불안감에 시달리는 교육의 문제 상황이 제시되었다. 그런데 시각 자료의 해석이 적절하지 않기에 해결 방향도 부적절하게 되었다. 즉, 퍼즐 완성하기와 같이 복잡한 일도 끝까지 마무리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은 문제 해결의 방향과 거리가 멀다. 이 문제는 시험 경쟁 구조나 제도의 개선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제시되어야 적절하다.

12. [출제의도] 어휘의 종류를 이해하고 그것을 연상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연상 과정이 ‘어휘 → 일반어 → 추상어’의 방향으로 나아간 것은 ①이다. ‘갈매기’의 일반어(상위어)가 ‘새’이고, ‘새’에서 생각과 관련된 추상어로서 ‘자유’를 연상했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② ‘어휘 → 특수어 → 특수어’, ③ ‘어휘 → 추상어 → 구체어’, ④ ‘어휘 → 추상어 → 추상어’, ⑤ ‘어휘 → 특수어 → 추상어’

13. [출제의도] 주어진 문장을 자연스럽게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한편’의 경우, 두 가지 상황을 말할 때, 한 상황을 말할 다음, 다른 상황을 말할 때 쓰는 말이다. 하지만 ㉔의 앞과 뒤의 문장은 같은 내용을 병렬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므로, ‘한편’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렇다고 ‘도리어’로 바꾸는 것도 옳지 않다. ‘도리어’는 ‘예상이나 기대 또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반대되거나 다르게’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접속어를 넣자면 ‘또’ 정도가 적합하다.

14. [출제의도] ‘ㅂ’불규칙 용언의 활용 방법과 그 표기법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ㅂ’불규칙 용언의 표기는 소리

나는 대로 ‘ㅂ’을 ‘ㅍ’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ㄱ’이 포함된 단음절 어간만 예외적으로 ‘ㅂ’을 ‘ㄱ’로 적는다. 따라서 ④는 ‘반갑다’가 활용할 때 어간 끝 ‘ㅂ’이 어미 ‘ㅏ’ 앞에서 ‘ㅍ’로 바뀌므로 ‘반가워’, ‘반가웠다’로 적어야 한다.

[오답풀이] ①과 ②는 단음절 어간이지만 ‘ㄱ’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어간 끝의 ‘ㅂ’을 ‘ㅍ’로 바꾸어 적는 것이 맞다. ③은 ‘ㄱ’이 포함된 단음절 어간이므로 어간 끝 ‘ㅂ’이 어미 ‘-아’와 결합할 때 소리 나는 대로 ‘와’(고와, 고왔다)로 적는 것이 맞다. ⑤는 ‘ㄱ’이 포함된 단음절 어간이 아니므로 어간 끝의 ‘ㅂ’을 ‘ㅍ’로 바꾸어 적는 것이 맞다.

[15~20] 현대시, 고전시가 복합 제재

<출전> (가) 김소월, ‘진달래꽃’

(나) 조지훈, ‘별리(別離)’

(다) 작자 미상, ‘춘면곡(春眠曲)’

15. [출제의도] 시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나)는 사랑하는 입이 떠나간 후 가슴 아파하며 아쉬워하는 화자의 안타까움이 고전적 소재와 함께 잘 드러나 있다. (다) 역시 입을 떠나보낸 후 혼자서 그리워하는 애절한 화자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16. [출제의도] 시에 나타난 공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나)에서 화자는 ‘발 돌우고 눈 들어’ 입이 떠나간 곳을 바라보면서 그 자취를 더듬는다. 그러나 떠나는 입은 이미 그림자도 보이지 않고, 화자는 슬픔에 잠겨 혼자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린다. 이 때 두리기둥 난간에 숨어 지켜보는 ‘연봉’은 화자의 순수한 사랑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아쉬운 마음에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지켜보는 곳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④ 화자는 임파의 거리감을, ‘약수’가 놓여 있는 ‘삼천리’나 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⑤ 화자가 ‘새’가 되어 ‘복창’에 가서 울고 싶다고 했으므로, 슬픔을 토로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17. [출제의도] 시적 표현 기법을 이해하고, 그러한 표현이 사용된 시어를 찾아낼 수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입의 소식이 오길 기다렸는데, 그 기대감이 깨진 데서 오는 화자의 슬픔을 ‘외기리기’라는 자연물에 이입하고 있다.

18. [출제의도] 시의 표현상의 특징과 그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종결 어미 ‘-우리다’를 반복함으로써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①). 또한 각 연이 1행 2음보, 2행 1음보, 3행 3음보로 시행 배열을 규칙적으로 배치하여 운율감과 함께 형태적 안정감을 살리고 있다(②). 그리고 1연과 4연이 서로 호응하는 수미 상관을 사용하였고(④), 4연에 반어법을 사용하여 입을 떠나보내는 화자의 복잡 미묘한 심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③).

19. [출제의도] 다른 작품과 비교하여 감상할 수 있는지를 문제이다.

(나)의 [A] 부분은 입이 떠나는 상황을 차마 앞에 나서서 보지 못하고 두리기둥 난간에 숨어 눈물 흘리며 바라보고 있는 초록 저고리 당홍치마를 입은 시적 인물의 애정함이 잘 드러나 있다. <보기> 역시 입 앞에서는 차마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 집에 돌아와 달을 보며 눈물 흘리는 시적 인물의 애상감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나)와 <보기>에 등장하는 ‘색시’와 ‘아가씨’는 모두,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속으로 삼키는 애상적 분위기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20. [출제의도] 시에 나타난 화자의 상황과 태도를 파악하고, 다른 갈래로 바꾸어 표현해 보는 문제이다.

(다)의 이별의 상황과 입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움의 태도가 잘 드러나 있는 시조를 찾아야 한다. ①은 떠나간 입을 그리워하고

있으며, '동풍'과 '실술'이 되어 입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B]의 발상이 잘 드러나 있다.

[오답풀이] ② 입이 떠나가는 상황이 아니라, 화자가 입을 떠나가는 상황이다. ③ [B]의 발상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④ 입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담겨 있다. ⑤ 입과 화자의 변치 않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21~24] 생활 제재

<출전> 이동연, '혼자 놀기 문화와 소비 사회'

21. [출제의도] 주어진 글을 읽고 그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 글쓴이는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혼자 놀기 문화'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혼자 놀기 문화'는 대중 매체와 이동 통신의 발달을 전제로 하여 생겨난 문화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소외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 젊은 세대들은 '혼자 있는' 상황을 즐기며 자기들만의 특성을 매체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긴 하지만, 그들이 특정 사이트를 중심으로 자기들의 세력을 넓혀 가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2. [출제의도] 유사한 상황과 관련하여 글쓴이의 견해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보기>의 그림은 인터넷에 올라온 글로 '혼자 놀기'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즉 <보기>의 만화에 드러나는 주제가 '나는 혼자 노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글쓴이는 [A]를 통해 혼자 노는 것보다는 여럿이 함께 놀아야 의미가 있다는 견해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보기>에 대한 댓글은 '주위와 어우러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내용이 적절하다.

23. [출제의도] 글에 나타난 대상의 태도에 대해 타당한 비판을 내릴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①은 자신의 모습을 인터넷 등의 수단을 이용해 남들에게 공개하면 그것을 본 남들은 그런 행위에 대해 댓글을 단다는 것을 근거로, 젊은 세대들의 '혼자 놀기' 문화가 '함께 놀기'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차피 가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일 뿐 실제 공간에서 이뤄지는 만남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①을 비판할 때는 젊은 세대들의 '혼자 놀기'가 실제 공간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24. [출제의도] 문장 부호의 개념을 이해한 후, 그것을 본문의 구체적인 부분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보기>는 '물음표'와 '작은따옴표'의 쓰임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의 내용이 본문에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일단 제시된 정보를 정확히 이해한 후, 정보에서 여긋나는 것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은 글쓴이가 추측한 내용이 아니라 글쓴이가 강조하고자 하는 구절을 작은따옴표로 묶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답변을 요구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물음은 '무의미하다'는 내용을 강하게 긍정하고 있다. ② 대가의 뒤에 물음표를 찍은 것은 '대가'라는 단어가 적절하다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③ 글의 논지 전개와 관련하여 생각할 때 '나홀로족'은 매우 중요한 말이므로 작은따옴표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⑤ 의문의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물음표 대신 온점을 사용한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는 물음표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25~28] 예술 제재

<출전> 강홍구, '미술관 밖에서 만나는 미술 이야기'

25.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4문단의 앞부분에서 왕의 초상화는 '어진도사도감'이라는 관청에서 화원이 그렸다고 하였다.

[오답풀이] ① 조선시대 공신들의 초상화는 화원이 관찰을 한 후 그렸다고 하였다. ② 조선시대의 초상화는 대상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에 주력하였다고 하였다. ③ '전신사조'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초상화 제작 정신이라고 볼 수 없다. 중국의 고개

지가 사용한 전신사조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니 중국도 그랬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④ 일반 사대부는 왕이나 공신에 비해서 그리기에 어려움이 덜했다고 했다.

26. [출제의도] 정보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①은 '전신'과 '사조'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둘을 포괄하고 있는 감상이라야 바른 감상이 된다. 그러자면 그림의 세부적 묘사를 통하여 대상이 되는 인물의 내면을 느끼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⑤는 앞부분은 묘사에 대한 언급을 하였고 뒷부분으로 가면 그런 묘사를 통해 드러난 인물에 대한 느낌을 언급하였으니 적절하다.

[오답풀이] 나머지 ①~④는 그림의 묘사와 관련한 감상을 하여서 '사조'에 대한 감상만 한 경우에 해당한다.

27. [출제의도] 보기를 바탕으로 문법적 지식을 적용하는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은 보기를 통해 보면 '주다'가 보조용언으로 쓰인 경우에 해당한다. '주다'의 의미가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어떤 행동을 한다는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이와 이질적인 것은 부사 '많이'의 꾸밈을 받는 본동사인 '(많이) 주었다'이다.

28. [출제의도] 지문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중요 개념의 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은 살아 있는 왕을 그린 것이고, ㉡는 왕이 죽은 후 추정에 의해서 그렸다고 하였다. ㉠과 ㉡ 중에서 왕의 실제 모습이 더 잘 드러나려면 아무래도 실제적 관찰이 이루어진 후 그린 그림일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오답풀이] ① 도사라고 하여도 오래 관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왕의 사후에 그렸다고 하였지 바쁘다고 하여 추정해서 그린 것이 아니다. ③ 원본을 근거 자료로 그린다고 하였다. ⑤ 왕의 그림은 모두 전문 화원이 그린다고 하였다.

[29~33] 고전소설

<출전> 박지원, '호질(虎叱)'

29. [출제의도] 인물 분석을 통해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세상의 평판으로 볼 때 '북곽 선생'은 높은 학식과 많은 저술로 천자와 제후의 존경을 받고 있으며, '동리자'는 절개가 높아 열녀 표창을 받은 바 있어 둘 다 유교적 질서 하에서 모범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제의 모습으로 볼 때 북곽 선생은 과부의 집에 몰래 들어가 유혹하며, 동리자는 성이 다른 아들을 다섯이나 두고 있는 등 겉으로 드러난 명성과 달리 위선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이 소설은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 인물을 통해 당대 양반 계층의 이중적인 태도를 풍자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30. [출제의도] 제시된 작품의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이 작품은 범을 등장시켜 위선적 도학자인 '북곽 선생'과 가짜 열녀 '동리자' 과부의 이중적 행태를 신랄하게 풍자, 비판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북곽 선생'이 다섯 아들에게 쫓겨 도망치면서 귀신 흉내를 내고 풍구덩이에 빠지는 등의 우스꽝스런 모습으로 희화화되어 표현됨으로써 해학성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이 글에는 치밀한 묘사가 나타나지 않으며 비장감을 자아내고 있지도 않다. ② 주인공의 내적 갈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환상적인 장면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탈속적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볼 수 없다. ⑤ 인물의 심리 변화를 통해 긴장감이 고조된 대목을 찾을 수 없다.

31. [출제의도] 인물의 성격과 행동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A]에서 동리자의 다섯 아들은 고매한 인품을 지닌 북곽 선생이

과부의 방에 들어올 리 없다고 판단하고, 어리석게도 풍문과 속신에 따라 북락 선생을 여우의 화신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다섯 아들은 한편으로는 북락 선생과 동리자의 위선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지만, 또 하나의 비판 대상으로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물로 풍자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북락 선생이 과부의 방에 들어올 리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아 북락 선생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다음 장면에서 여우를 잡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두려워한다고 볼 수 없다. ④ 변신술에 대한 호기심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어머니로 인해 안타까워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32. [출제의도]** 인물 간의 말하기 태도를 유사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B]에서 '북락 선생'은 범에게 아부하고 있으며, 범은 아부하는 북락 선생을 질책하고 있다. ⑤에서도 실수한 후배는 선배에게 아부하는 말을 하고 있으며, 선배는 아부로 실수를 얼버무리려 하지 말라고 질책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감사의 마음 표현 - 상대방의 몸 걱정 ② 부탁 - 수용 ③ 부탁 - 거절 ④ 축하 - 감사 및 조언

**33. [출제의도]** 작품 속의 상황을 속담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①의 상황은 북락 선생이 간신히 위기를 벗어났는데(똥구덩이에서 기어올라 옴) 더 큰 위기를 만나(길목에 앉아 있는 범을 만남) 상황이다. 따라서 '산 넘어 산이로군.'이란 표현이 가장 적절하다.

[34~38] 사회 제재  
<출전> 김상규, '절약의 역설'

**34. [출제의도]** 글의 서술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고전과 경제학자와 케인스의 이론을 대비적으로 소개한 후, 이중 대공황 당시 최적의 해법을 제시했던 케인스의 이론에 초점을 맞추어 글이 서술되고 있으므로 ⑤가 정답이다.

**[오답풀이]** ③ 대립되는 두 주장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두 이론을 절충(折衷 : 상반된 두 의견의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용적인 입장을 견지함)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

**35. [출제의도]** 지문에서 탐색한 사실적 정보를 바탕으로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㉔부분의 특징은 '생산량'과 '소비량'이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소비가 뒷받침되지 않는 생산이 지속되면서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㉔부분은 '과잉 생산, 과소 소비'가 지속되면서, 소비가 생산을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공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시기라 할 수 있다.

**36. [출제의도]** 두 이론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고전과 경제학자는 '아담 스미스의 이론'과 '세이의 법칙'을 따랐기 때문에 공황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했지만, 케인스는 고전과 경제학자의 주장을 부정하고 유효수요 이론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통해 공황의 원인과 해법을 제시했다. 따라서 ②가 정답이다.

**[오답풀이]** ③ 고전과 경제학자는 시장 경제의 자동 조절 작용을 강조했지만, 케인스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했다. ④ 고전과 경제학자는 '공급이 수요'를, 케인스는 '수요가 공급'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⑤ 케인스는 공황의 해법으로 '소비의 증대'를 강조했지만, 고전과 경제학자가 '생산 증대'를 공황의 해법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다.

**37. [출제의도]** 문제 현상이 발생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실업이 발생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탐색하는 문제로, ㉠과 ㉡가 인과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선택지를 고르면 된다. 고전과 경제학자들은 '공급이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의 법칙을 따랐기 때문에 '물건을 생산만 해 놓으면 저절로 팔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즉 '생산된 상품이 판매되지 않아, 기업이 도산하고, 그로 인해 실업이 발생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이다.

**38. [출제의도]** 필자의 주장을 가장 잘 반영한 홍보물을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절약의 역설'이란 '절약'이라는 긍정적인 행위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빗댄 표현이다. 케인스는 '절약(검소)'이 지나치면 '유효수요'가 창출되지 않아 경기 침체를 초래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지나친 검소보다는 형편에 맞는 건전한 소비를 권장했다. 따라서 '절약의 역설'을 가장 잘 반영한 홍보물은 ②라고 할 수 있다.

[39~42] 기술 제재  
<출전> 윤용현, '전통 염색 기술'

**39. [출제의도]** 각 문단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는 천연 염료를 동물 염료, 광물 염료, 식물 염료로 구분하고, 식물 염료를 중심으로 어떤 재료가 무슨 색을 만들어내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조상들은 특히 식물 염료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자연 속의 여러 풀 종류들은 붉은색, 검은색, 푸른색, 노란색을 만드는 재료로 활용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염료 재료들을 어떤 시기에 채취하는가에 관한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

**40. [출제의도]** 문장에 나타난 글의 설명 방식을 이해하고 이와 유사한 사례를 파악해보는 문제이다.

①은 천연 염색의 염료를 동물 염료, 광물 염료, 식물 염료로 구분한 설명이다. 즉, 상위 개념으로서의 천연 염료를 하위 요소인 동물 염료, 광물 염료, 식물 염료로 쪼개어 제시하는 '구분'의 설명 방식이다. 이와 유사한 설명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는 ⑤번이다. 설화 양식을 하위 개념인 신화, 전설, 민담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은 한국 영화의 인기 요인을 세 가지로 들어 설명한 '분석'이다. ②는 줄다리를 군부(群舞)를 들어 설명하는 방법, 즉 유사한 사례를 들어 중심 개념을 설명하는 '유추'이다. ③은 백두산 호랑이의 생김새를 관찰한 설명인 '묘사'이다. ④는 지적 재산권을 개념을 제시한 점에서 '정의'의 설명 방식과 그 예를 들어 설명한 '예시'의 설명 방식이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41. [출제의도]** 본문에서 제시한 쪽빛 염색 과정을 시각 자료로서 적절히 확인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다)를 보면 쪽빛 염색에서는 쪽풀을 일주일 동안 삭히고 체로 불순물을 거른 후에 조개 껍데기를 구워 만든 석회 가루를 뿌리면서 고무레로 저으면(ㄷ), 물 위 표면에 물거품이 생긴다고 했다.(ㄷ) 그리고 석회가 색소를 머금고 내려앉으면 아래는 푸른물, 위는 맑은 물로 나뉘어지고, (ㄴ) 그 다음 잿물을 섞어 저으면 죽 상태의 쪽 염료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그림을 순서대로 연결하면, ㄷ → ㄹ → ㄴ → ㄱ 이라고 할 수 있다.

**42. [출제의도]** 활용된 한자어를 문맥에 맞게 고유어로 표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한자어로 제시된 어휘들을 같은 뜻의 고유어로 바꾸려면 문맥적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 ㉠의 추출하다는 '용매(溶媒)를 써서 고체·액체에서 어떤 물질을 뽑아내는 일'을 가리키고, 또 조개 껍데기를 구운 석회를 통해 색소를 얻어낸다는 의미이므로, '이끌어내는'으로 바꿔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는 '뽑아내는'으로 바꿔 쓰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 '생산했다'에서 '생산'은 '재화를 만들어내는 일'의 뜻이므로, '만들어냈다'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 '애용했다'에서 '애용'은 '사랑하여 쓰다.'의 뜻이므로, '즐거 썼다'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 '혼합하면'에서 '혼합'은 '이것저것 뒤섞다'는 뜻이므로 '섞으면'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 '유발하지'에서 '유발'이 '어떤 일이 원인이 되어 다른 일이 일어남.'을 뜻하므로, '일으키지'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43~47] 현대소설

<출전> 최일남, '타령'

43. [출제의도] 소설의 서술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이 글은 대화와 장면을 다소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듯한 대목도 들어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기수(남편)네' 사정까지 다 알고 있는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지적 작가의 시점으로 서술하고 있다. 주어진 지문은 '기수가 병든 아내를 두고 일을 나옴 → 위급하다는 아들의 전갈을 받음 → 기수가 집으로 급히 달려감 → (과거 사건 회상) → 아픔을 딛고 다시 일을 하러 나감'과 같이 현재의 진행 사건 속에 과거 사건을 회상하는 대목을 삽입하여 서술하고 있다.

44. [출제의도] 사건의 핵심 정보의 파악과 이를 통한 소재목의 설정 능력을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은 생선 가게를 운영하면서 갖게 된 아내의 소망과 죽음으로 인한 꿈의 좌절이 이야기의 핵심이 된다. 따라서 핵심 사건에 대응하여 설정한 적절한 제목으로는 안타까운 이야기, 곧 '살 만하니까 죽어가는' 타령조의 이야기가 적절하다. (㉠과 같이 '희망이 있어 행복하다'든지, '웃음을 통해 가난'을 극복한다는 것은 글의 주제와 거리가 있다.)

45. [출제의도] 비속어의 특징과 용례를 파악하는 어휘력 측정의 문제이다.

'소갈머리(=소갈딱지)'는 마음이나 속생각, 즉 심지(心志)를 낫잡아 이르는 비속어이다. 이는 대체로 '소갈머리가 좁다'와 같이 쓰인다. (참고로 지문에는 '어편네'(결혼한 여자나 자기 아내를 낫잡아 이르는 말), '때려치우다'(하던 일을 아주 그만두다)와 같은 비속어가 부분부분 사용되었다. 참고로 '눈깔'이라든지 '배배기'라든지 하는 말이 사람이 아닌, 물고기에 사용된 말이라면 이는 비속어가 아니다.)

46. [출제의도] 제재의 서사적 기능을 묻는 문제이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판돈으로 도박을 벌이다 잡힌 여자들의 사진이 실린 신문 조각이 생선가게의 포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두 삶을 대비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즉, 도박하는 '여자들의 삶'은 기수네를 포함하여 어렵게 살아가는 다수의 서민들의 삶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참고로 사진 기사가 어느 한쪽은 도덕적이고 어느 한쪽은 부도덕하다는 것을 대비하기 위한 의도로 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7. [출제의도] 인물의 의도의 추리와 독자의 평가의 적절성을 묻는 문제이다.

'동대문시장'은 생전 아내의 입장에서 볼 때, '더 넓은 곳에서 보란 듯이 장사하고 싶은 소망과 기대→살아가는 이유'로 나타나 있다. 이를 독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내'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꺾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48~51] 인문 제재

<출전> 이덕일·이희근, '고구려인의 천하관이 담긴 광개토대왕릉비'

48. [출제의도] 글의 서술 방식과 그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 것이 없으므로 ②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1문단의 끝부분에서 중심 화제인 고구려의 천하관에 대해 물음의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③ 1문단에서 '천하관'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④ 3문단에서 중국의 천하관과 대조하여 고구려의 천하관이 지닌 독자적인 특징을 서술하고 있다. ⑤ 2문단에서 광개토대왕릉비의 기록을 활용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49. [출제의도] 추가 정보와 관련하여 글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의 고구려를 세운 시조 추모성왕은 천제(天帝)의 아들이란 설명과 본문 마지막 문단의 고구려가 동북아 지역 인접 국가들을 조공국으로 규정하여 복잡한 국제 질서를 주도하고자 했다는 설명에서 ⑤가 적절한 설명임을 판단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본문에서는 고구려의 천하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보기>에서는 시조와 광개토대왕, 그리고 조공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서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구려의 건국 이념이 어떠한지는 판단할 수 없다.

50. [출제의도] 중심 화제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2문단에서 고구려는 자국을 천하의 중심으로 인식하였다고 한 것에서 'ㄴ'이, 4문단에서 고구려의 대외 정책도 천하관에 기초하고 있었다는 설명에서 'ㄷ'이 적절한 설명임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1문단에서 천하관이 중국에서 전래된 개념이라고 설명한 것에서 'ㄱ'은 잘못된 설명임을 알 수 있고, 3문단에서 고구려의 천하관이 중국의 천하관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설명에서 'ㄷ'이 잘못된 설명임을 알 수 있다.

51. [출제의도] 어휘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주도'의 의미는 '주동적인 처지가 되어 이끌.'이고, '어떤 일을 책임을 지고 맡아 관리함.'이란 의미를 지닌 단어는 '주관'이다.

[52~56] 고전수필

<출전> 서거정, '박쥐야 박쥐야'

52. [출제의도] 글의 다양한 서술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

이 글에서는 박쥐의 외양과 행동을 거론하기는 했지만, 다양한 측면을 하나씩 열거하면서 언급하고 있을 뿐이지, 인과적인 방법에 의해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53. [출제의도] 글의 전개 과정에서 글쓴이가 취한 태도와 관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

(ㄷ)의 과정에서 글쓴이는 미처 몰랐던 박쥐의 장점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박쥐도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특성을 지닌 존재로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별히 박쥐의 행동이나 외양상의 장점을 발견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54. [출제의도]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바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A]에서 글쓴이는 박쥐가 다른 새들보다 전혀 뛰어난 점이 없는 데도 그물에 걸리지 않고 마음 놓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며, 못생겼다는 점이 오히려 생명을 부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말로 우습구나.'라는 표현은 그 이치가 '오묘하다.', '세상일은 정말 알 수 없다.'는 의미로 한 말이다.

55. [출제의도] 낱말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이 글에서 '눈'은 앞에 '깨달은 자'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깨달은 다음에 얻은 관점(觀點), 시각(視覺), 식견(識見), 안목(眼目)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의향(意向)'은 '마음이 향하는 바. 또는 무엇을 하려는 생각.'이라는 의미로, '눈'의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56. [출제의도] 생략된 어구를 적절하게 추리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

(㉠)과 (㉡)에는 모두 만물의 형상이 매우 다양하며 제각각이라는 의미의 어휘가 들어가야 하므로,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귀.'이라는 의미의 '유유상종(類類相從)'은 적합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각양각색(各樣各色) : 각기 다른 여러 가지 모양과 빛깔. ③ 천차만별(千差萬別) : 여러 가지 사물이 모두 차이가 있고 구별이 있음. ④ 천태만상(千態萬象) : 천 가지 모습과 만 가지 형상이라는 뜻으로, 세상 사물이 한결같지 아니하고 각각 모습 모양이 다름을 이르는 말. ⑤ 형형색색(形形色色) : 형상과 빛깔 따위가 서로 다른 여러 가지.

[57~60] 과학 제재

<출전> 한국물리학회, '빛과 파동 흔들기'

57.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사실적 정보를 정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빛이 대기층을 이동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는 글에 제시되어 있으나 '대기층의 종류'(성층권 등)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오답풀이] ② 파장이 짧아 대기의 입자들과 충돌해 산란이 일어난다고 있다고 했다. ③ 빛의 굴절과 분산 현상 때문에 무지개가 생기고 있다고 했다. ④ 파장에 따라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등으로 빛이 구분된다고 했다. ⑤ 파장에 따라 빛의 굴절 정도가 다르다고 했다.

58.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정보를 구체적 시각 자료에 적용해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빛의 산란' 현상은 빛이 대기 중의 입자들과 부딪치면서 빛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이다. 이때 빛은 다양한 빛깔로 흩어지지 않는다. 다양한 빛깔로 흩어지는 것은 분산 현상이다. 파란빛은 파란빛으로 흩어질 뿐이다. '다양한 빛깔로 갈라지며 흩어지는 것'은 '빛의 분산'과 관련이 있다.

[오답풀이] ① 해 질 녘에는 빛이 이동해야 하는 거리가 길어진 다. ② '붉은빛'은 파장이 길기 때문에 산란이 잘 일어나지 않아 먼 거리를 이동한다. ④ '파란빛'은 산란 현상이 많이 일어나 대부분 대기 중으로 흡수된다. ⑤ 해 뜰 녘과 해 질 녘에 일어나는 현상이 유사하다고 제시되어 있다.

59.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정보를 특정 대상과 관련지어 정리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첫 문단에서 빨간빛의 파장이 가장 길며, 보라빛의 파장이 가장 짧다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라빛이 붉은빛보다 파장이 짧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④ 보라빛은 파장이 짧기 때문에 산란이 많이 된다. ⑤ 태양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보라빛은 파장이 짧기 때문에 굴절이 많이 되어 일반적으로 가장 아래에 위치하게 된다.

60.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①의 '들다'는 '~을 ~으로 설명하거나 증명하기 위하여 사실을 가져다 대다.'란 의미를 갖고 있다. 이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은 ①이다.

[오답풀이] ② '물감, 색깔, 물기, 소금기가 스미거나 배다'는 의미이다. ③ '안에 담기거나 그 일부를 이루다'는 뜻이다. ④ '떡다'의 높임말이다. ⑤ '밖에서 속이나 안으로 향해 가거나 오거나 하다'는 의미이다.